

오늘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 전주 개최

내달 4일까지 화산체육관에서 3000여명 참석 전국 최대 규모

오늘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제34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 및 제26회 회장기 전국중학교레슬링대회'의 막이 올랐다.

오늘부터 4월 4일까지 7일간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선수단 및 관계자가 3,000여명이 참석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레슬링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초·중·고 대학, 일반 여자부 등 총 12체급이 자유형과 그레코로만형으로 나뉘어 치러진다.

이번에 출전하는 우리 도내 출신 레슬링 선수 중에도 중학부 이호빈(부안중)

선수, 고등부 김소이(전북체고)선수 대학부 심정민(전주대)선수, 이도원(원광대)선수 등이 메달획득이 유력시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단순 방문이 아닌 외부선수 및 관계자들의 장기체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재진 체육진흥과장은 "문화특별시 전주에서 개최되는 제34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 및 제26회 회장기 전국중학교레슬링대회가 우리나라 레슬링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보다 많은 분들이 레슬링에 사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진안군청 김광훈 전국실업역도선수권 3관왕

진안군청 역도팀 소속 김광훈가 금년에 열린 첫 대회에서 대회 3관왕을 차지하며 기분 좋은 시작을 했다.

역도팀 최고참인 김광훈 선수는 전남 보성 다항체육관에서 열린 '2016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서 77kg급에 출전하여 인상 145kg, 용상 185kg 합계 330kg를 들어 대회 3관왕을 차지했다.

김광훈 선수는 9년 동안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지난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한편 같은 팀의 박무성 선수도 85kg급에 출전해 용상과 합계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기쁨을 더했다.

/김민근기자



고창 봉암초, 전국소년체전 체조부문 3명 최종선발

고창 봉암초등학교(교장 최석진) 체조부가 선전하고 있다. 봉암초 체조부는 지난 28일 전북 체육고등학교에서 열린 '제45회 전국소년체전'에서 5학년 심인환, 4학년 김연수·오현중 학생이 체조 부문에서 최종 선발됐다.

이는 지난 해 12월 17일 체조부를 창단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이뤄낸 쾌거로 최석진 교장의 열정과 체조부 감독인 한승오 교사, 이문규 체조전문지도자(코치)의 체계적 지도, 학생들의 재능이 빛을 발하는 뜻깊은 성과다.

이번에 선발된 체조부 학생들은 오는 5월 27일~31까지 강원도에서 열리는 '제45회 전국소년체전'에 참여하여 전국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봉암초 최석진 교장은 "창단 이후 첫 참가에 좋은 성적을 기록하여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두어 학교와 고창군, 그리고 전부를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효성 '섹시함에서 긍정을 찾는다'

'물들다 컬러드' 두 번째 솔로 미니앨범

그들 '시크릿'의 리더 전효성(27)의 미덕은 인정이다. 피리피리 '섹시함'을 굳이 부정하지 않고 그 안에서 긍정을 찾는다.

우아함을 내세운 두 번째 솔로 미니앨범 '물들다: 컬러드'의 쇼케이스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흥대앞 예스24 무브홀에서 "초반에는 섹시함과 몸매만 부각되는 부분에 대해 아쉬웠는데 요즘은 천천히 내 숨겨진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사실 섹시하다는 말은 감사한 일이다. 행복하고 비주류적인 부분에 대해 팬들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음악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덜 보인다는 걱정이 사실이다. "보컬로서도 욕심이 많고 작사에도 욕심이 많다. 새로운 앨범을 준비할 때마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다른 부분이 부각됐지만 시간이 지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면 대중들도 그에 대한 시선이 좋게 바뀌지 않을까"

10개월 만에 발표한 이번 앨범에서 전효성은 그녀의 말처럼 성장했다. 총 6곡이 실린 앨범의 타이틀곡 '나를 찾아줘'가 증명한다. 힙합듀오 인터처블의 래퍼 디렉션이 피쳐링한 이 곡의 작사가 명단에 전효성의 이름이 올랐다. 강렬한 어쿠스틱 피아노와 하우스비트가 어우러진 이 댄스 곡의 노랫말에는 진실된 행복을 찾아 길을 나서는 당찬 발걸음이 담겼다.

무대 위 모습이 화려하고 빛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반짝이 의상과 장신구 등으

로 화려함을 더했다. 자아를 찾기 위해 전효성이 고군분투하는 뮤직비디오에서는 이 거추장스런 것들을 훌훌 털어버린다.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고 나를 찾고 싶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최근 행복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작곡가 오빠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행복의 기준이 성공이 되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듣는데 머리를 빙 빙 맞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명예욕이 커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했다. 그런데 성공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으면 사소하지만 소중한 것들을 잃고 살게 될 것 같았다. 맛있는 아침과 햇살, 이렇게 쇼케이스를 여는 것 자체가 행복인데 말이다. 순간 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미래의 행복이지 않나 한다"

댄스곡을 타이틀로 내세웠지만 앨범 수록곡인 '더 문처럼 전효성표 발라드를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다. "나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속스러워했다.

시크릿 활동이 바빠 대학을 자퇴했던 전효성은 올해 우석대학교 공연예술뮤지컬학과에 신입생으로 입학했다. "주위의 많은 분들이 더 늦기 전에 도전하라고 하더라. 올해 스물여덟인데 새롭게 도전하는 해로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진짜 사나이'에도 출연했고, 앨범도 냈고, 학교에도 다니게 됐다.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용기를 냈다. 힘들겠지만 배운다는 재미가 있을 것 같다." /인진수 기자



전효성 두번째 솔로 미니앨범 '물들다 컬러드'의 쇼케이스가 28일 흥대앞 예스24 무브홀에서 열렸다

호원대학교 스포츠단, 전국우수선수권 청소년대표 1명·국가대표 5명 배출

호원대학교(총장 김희성) 스포츠단(단장 이명찬)이 제28회 회장배 전국우수선수권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청소년대표 1명과 국가대표 5명을 배출했다.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충북 보은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대한우수협회가 주최하고 충북우수협회가 주관해 선수와 임원·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가했다.

종별별 투로와 산타종목으로 초·중·고·대·일반부와 청소년대표 및 국가대표 선발전으로 나뉘어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서 호원대학교 우수선수단은 청소년대표 1명과 국가대표로는 투로 1명, 산타 2명 등을 배출했으며 졸업생 가운데 투로 종목에 2명이 선발되면서 우수 종목에서 국내최고의 팀으로 우뚝 섰다.

청소년대표로는 남권진(1학년, 18세)이 선발됐으며 국가대표에 선발된 학생은 장권진(3학년, 22세), 산타-50kg 김덕호(2학년, 20세), -65kg 박승모(4학년, 23세) 등 3명과 졸업생인 장권진은 조승재(호원대 11학년), 태극권장은 박민호(호원대 12학년) 등 2명이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한편 회장배 전국대회 대학부에서는 남자 남권/남도 1위 정승훈(1학년), 여자 남권/남도 1위 전나연(2학년), 남자 태극권/태극급 1위 이성민(1학년), 산타-60kg 3위 임상복(2학년), -65kg 2위 이용호(1학년) 등이며 이번 대회에 일반부 남자 남권/남도로 출전하여 1위한 김영준(3학년) 선수가 대회 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권산=문정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